

석유화학 시장에서 중동 국가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화학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동은 한때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전문인력이 없으며 국제유가가 오락가락함으로써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으로 평가됐으나, 오늘날에는 수요기반이 부족할 뿐 동북아시아를 뛰어넘는 석유화학제품 공급지역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트가 크게 낮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기초유분 공급에 그치지 않고 유도제품까지 생산하는 석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위협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맹주로 거듭나고 있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 베이스 합성수지는 이미 중국 수입시장의 최대 공급국가로 부상했고, 최근에는 P-X를 중심으로 합성원료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메이저들과 합작으로 합성고무 상업화에도 나서고 있다.

에틸렌은 사우디가 2014년 1500만톤에서 2020년 1700만톤으로, 이란을 제외한 GCC 전체로는 2100만톤에서 2900만톤으로 확대하며, 이란을 포함하면 이미 3000만톤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4000만톤 가까운 생산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생산능력의 3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원료코스트가 나프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연가스 베이스 에탄을 중심으로 나프타, LPG까지 투입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틸렌 생산능력 확대를 기반으로 합성수지는 사우디에 이란을 포함하면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국면에 들어가 이미 한국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합성원료도 P-X에 이어 PTA를 상업화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합성고무도 SSBR, EPDM 등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유분도 메탄올을 중심으로 초산 유도제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필렌 생산을 확대하면서 아크릴산-SAP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적극화하고 있다. LG화학도 최근 들어서야 아크릴산-SAP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을 뿐인데 사우디가 벌써 LG화학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머지않아 BTX 생산을 확대하면서 합성원료 시장에 본격 뛰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MDI나 TDI 같은 폴리우레탄 원료 시장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abic이 GE Plastic을 인수하면서 EP 시장에서는 이미 선두주자로 부상했고 폴리우레탄 원료까지 공세를 가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수요기반이 충실한 중국이나 차별화를 적극 추진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우디에 대적할 상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도 사우디의 부상에 대응해 중동기업들과 합작을 추진하거나 중동과 원료조건이 비슷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최근에는 셰일가스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진출도 타진하고 있으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본처럼 범용제품 생산을 축소하고 차별제품 중심으로 구조재편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도 범용제품에 매달려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두려움의 대상이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